

~~~~~

# 해외정보

### ○ 요소 국제가격 동향

요소의 국제 가격이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미국과 남미 브라질 시장용이 증가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제까지 수요가 많지 않았던 이집트와 이라크 등의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흑해, 중동, 인도네시아, 중국 등도 갑자기 증가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갈수록 공급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도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요소 국제동향은 수급 관계에서 이렇게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 “시황상품”으로 불릴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예를 들어 흑해 선적분으로 FOB 155달러, 중동 제품으로 FOB 160~165달러, 수출 여력이 거의 없는 인도네시아제품도 FOB 148~150달러 수준이다.

이 가격은 작년 말, 흑해 선적분이 100달러를 밑돌았고, 중동 제품도 115~116달러, 인도네시아 제품도 120달러 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흑해 선적분은 55달러 이상 상승했으며, 중동제품도 45~50달러, 인도네시아 제품도 30달러 전후가 상승한 값이다.

요소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침체기에 있었으나,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스값 상승으로 미국이 생산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한편, 남미 브라질용에서도 수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이집트, 이라크 등의 신규 수요가 발생했고, 자체 생산으로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했던 인도도 새롭게 매입을 서두르고 있어 더욱 수요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도 흑해 선적분이나 중동 제품 등의 공급처들이 생산 트러











